

도시의 집중호우, 침수 위험 대비에 박차

부산시 기획담당관, 자연재난과
2023.4.13.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2023.5.1.

인천시 건축과
2023.5.23.

부산시, '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부산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의 대시민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시는 4월 열린 제8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구축 중인 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을 시연하였다.

부산시의 도시침수 통합관리시스템은 도시침수 예상도를 기반으로 침수 위험 정보, 최적 대피경로와 도로 통제 상황, 과거 침수이력 등 재해지도, 현장 CCTV, 계측자료 외 도시 침수와 관련된 정보 일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침수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사용자 기반의 도시침수종합정보 ▲하천수위·조위·강우정보 등 실시간 기상관측정보 ▲재해정보지도 및 자연재난행동요령 등이 있다. 특히 대피가 필요한 경우 도로 상황, 교통 통제 상황, 대피소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침수 지역을 회피하는 최적의 대피경로도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 관측장비 확충,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연계 확대 등을 통한 데이터 축적과 품질 보안을 통해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충청남도, 침수 취약주택에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충청남도는 관내 시·군과 함께 침수 우려 가구 및 단지에 방지 시설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도내 방지주택 344가구와 공동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방지하가구 105가구, 지하수위를 고려한 하천변 인근 단지 34단지를 우선 설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월부터는 세부 실태 조사와 실측조사를 병행해 침수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우선 설치 대상 가구·단지에 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지속 관리 대상 100여 가구를 추가 선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인천시, 방지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무상 설치

인천시가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방지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시에서 발표한 방지주택 침수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세입자 이주 지원과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이어 방지주택 거주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폐식 방범창은 방지주택 침수 시 수압으로 인해 현관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창문으로 탈출하게 하여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시는 방지주택에 거주하는 625가구에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방지주택에 전입신고한 시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침수 우려 방지주택 거주 가구와 노인·아동·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